



존경하는 김천의료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임 김천의료원장으로 부임한 정용구입니다. 우선 의료원 직원 모든 여러분께 부족한 저를 훈훈한 마음으로 환영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의료원은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무엇보다도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의료원의 역사는 매우 자랑스럽고 중요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김천의료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모든 선배님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오랜 역사의 산실을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할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짧은 시간 내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이 안타깝지만 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재앙을 대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은 공공 병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진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김천의료원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위 대형 의료기관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빠른시간 내에 코로나 전담병원을 탈피하여 예전과 같이 급성기 환자 진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도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으나 아직은 좋은 소식을 못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정부와 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 운영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전념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이 급성기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모든 직원이 같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400~500여명 지속적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의료원도 약 30여 명 이상 입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투여 및 항체 형성 등이 충분해야 집단면역이 발생하고 이후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역시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급성기 환자 진료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직원이 최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내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1. 3. 19

김천의료원장 정 용구 올림

